

아동수당, 9월 21일 첫 지급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시행 준비 계획'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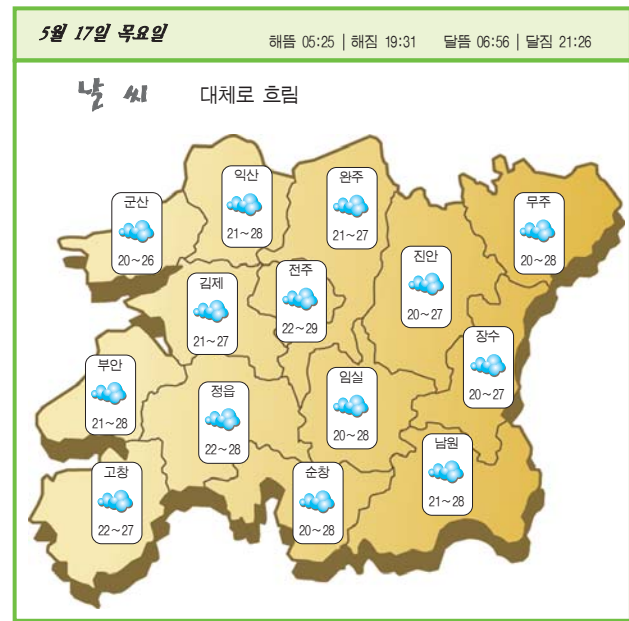
내달 20일부터 신청접수
4인가구 기준 1436만원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9월 30일까지 신청서
9월부터 수령받아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6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첫 급여 지급일은 추석 직전인 9월 21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 준비 계획'을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

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있는 달 전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9월 첫 수당은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지급이 원칙이나 9월분은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 9월21일로 날짜를 앞당겼다. 올해 만 6세 이하 아동 1명을 둔 3인가구 기준 월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1170만원 이하인 수당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등이다. 보호자나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귀 상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엔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9월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생 아동은 출생 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안에만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약 198만가구)의 95.3%인 약 189만가구가 신청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6~7월 사전신청 기간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아동수당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선 신분증, 온라인에선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땐 방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복지부 장관 고시 선정 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한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고려)이거나 보호자가 사망 또는 미성년, 무자격, 질병등의 사유를 가지고 있을 때 아동수당을 환수하지 않는다. 유주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행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대규모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충분히 주어지는 사전신청 기간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하고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잘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대학 생활관 축제
군산대학교는 지난 15일 대학 생활관 및 야외무대 일원에서 2018학년도 단청제 및 오픈하우스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의 역사 한눈에

원광대, 대학본부에 역사관 개관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는 근대부터 현재까지 대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을 대학본부 1층에 개관했다. 원광대 역사관은 대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전시실을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학교 위상 정립과 함께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관식은 신명국 원광학원 이사장과 김도중 총장을 비롯해 유희승 총학생회장 등 대학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처 기록물관리과와 LINC+사업단 주관으로 개교 72주년을 기념해 지난 14일 열렸다. 53㎡의 공간에 마련된 역사관은 원광대 교육이념을 정립하고, 원광인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한눈에 조망

할 수 있는 전 구성원 소통의 장이 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역사관 구성은 대학 탄생을 비롯해 대학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학이념을 기반으로 한 역사 문화 콘텐츠를 문학, 스포츠, 사회봉사, 국제교류, 교육연구 등으로 나누어 배치했다. 또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시각적 효과를 내기 위해 영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초창기 졸업장, 수업시간표, 수강노트, 학생배지 등 그동안 수집된 실물자료도 전시돼 있다. 특히 역사관 중앙에는 원불교 익산 성지와 캠퍼스 전체를 미니어처로 제작해 세웠으며, 미니어처는 LINC+사업단 캡스톤디자인 수업의 일환으



원광대학교는 14일 근대부터 현재까지 대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을 대학본부 1층에 개관했다고 16일 밝혔다.

로 건축공학과 노준석 교수와 건축학과 및 건축공학과에서 참여한 12명의 재학생이 8개월 동안 3D프린터로 직접 제작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원광대는 '아시아 중심대학'이라는 대학 목표에 걸맞게 추후 외국어 및 유학생들의 대학 역사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종합 전시 안내문을 배치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나는 꼬마 예술가'... 전주시 드림스타트, 어린이 미술 프로그램 추진

전주시가 미술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의 정서 안정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아이들의 꿈 찾기 일환으로 총 8개월 간 완산·덕진 드림스타트센터에서 매주 1회 드림아동을 대상으로 '꼬마 예술가' 프로

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꼬마 예술가' 프로그램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드림스타트 자체 프로그램으로, 참여 아동들은 다양한 미술 재료를 제공받아 표현법을 배우고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미술심리치료를 자격증을 보

유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가 맡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사례관리자를 통해 파악한 아동들의 욕구에 따라 평소 미술활동 기회를 갖고 싶어 하거나 정서적 안정 및 집중력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안내, 올해 총 10명의 아동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법의 미술활동을 통한 성취감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됐던 참여아동들의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고, 아동의 집중력과 창의성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기동취재반

교사 공동체 미래 모색

도교육청, 도내 활동중인 314개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 대표와

전북도교육청 지원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 대표자가 한데 모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교사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행사가 열린다. 도교육청은 도내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314개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 대표를 한자리에 모아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철학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공유와 협력을 통해 교원 개인 수준의 전문성 개발 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과 교사의 성장을 도모하는 자발적인 교사 공동체로, 교육과정·수업·평가 및 생활 교육 혁신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과연구회, 토론협력형 수업 동아리, 교육 정책 동아리, 법교과 동아리 등 4개 분야에 대

해 2014년부터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4개 분야를 합쳐 310팀 모집에 442팀이 지원했을 정도로 교사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다. 이런 뜨거운 관심을 모아 오는 25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운영 철학과 전복의 현황에 대한 모두 강연을 시작으로 법교과 동아리 시벨리우스 등 우수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운영 사례 공유, 올해의 사업 운영 지침 전달 등으로 꾸며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 교육포털이나 수업 나눔 축제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해 왔지만 보다 열린 자리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을 만큼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성장했다"면서 "이 행사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운영에 대한 새로운 자극이 되고 현장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